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47% 급등... 추격매수 주의보

꺼질줄 모르는 IPO 열풍

상장기업 29곳 시초가 46.9% ↑
공모개 2배수준 기업도 10곳 달해
시초 대비 현 주가 상승률 -6.8%
전문가 인기공모주 추매 자제 권고

높은 경쟁률로 공모주를 챙기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추격매수 주의보가 발동됐다. 공모가와 시초가의 차이가 크다면 그만큼 손실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수익을 실현하려는 욕구 역시 커지며 상장 초기 주가 조정 위험도도 높아졌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인기를 끌며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50% 이상 상승하는 일도 흔해진 분위기다.

◆기관도 개인도 '사상 최고' 경쟁률

6일 한국거래소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856대 1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SK바이오팜(836대 1)과 카

〈3분기 상장기업 가격비교〉

2개사 가격비교	수익률
공모가 대비 현재가	37.5%
공모가 대비 시초가	46.9%
시초 대비 현재가	-6.8%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카오게임즈(1479대 1)가 평균을 끌어올렸다.

기관 수요예측에서의 폭발적인 성과는 일반투자자 수요예측에도 직결됐다. 같은 기간 일반 청약경쟁률도 1025대 1을 보이며 덩달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PO를 거쳐 3분기에 상장한 29개 기업(스팩·재상장·리츠 제외) 중 15곳이 경쟁률 1000대 1을 넘겼다. 2000대 1을 넘어서는 종목도 이루다(3040대 1), 영림원소프트랩(2494대 1), 한국과파(2036:1) 등 3곳이다.

도화선은 SK바이오팜으로부터 촉발된 공모주 열풍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거액의 청약 증거금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에 투자하기 위한 대안

〈분기별 기관, 개인 수요예측 경쟁률〉

기관	분기	개인
211	2017년 1분기	397
391	2분기	467
327	3분기	473
258	4분기	533
391	2018년 1분기	584
630	2분기	866
548	3분기	520
381	4분기	435
640	2019년 1분기	599
461	2분기	470
643	3분기	484
572	4분기	450
832	2020년 1분기	607
823	2분기	762
856	3분기	1025

으로 공모주펀드로 향했고, 공모펀드 수요가 높아지자 연쇄적으로 기관 경쟁률 역시 높아졌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PO 공모 시장에 참가하는 기관 수와 그 금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했다.

◆공모가, 시초가 동반 상승

문제는 이 같은 경쟁률 때문에 공모가와 시초가가 모두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에 상장한 기업들 76%가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당연히 시초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초가는 상장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수·매도호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결정된다. 3분기 상장기업 29곳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은 46.9%로 집계됐다.

시초가가 최대수준인 공모가 2배에서 결정된 기업도 10개에 달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티에스아이, 에이프로, 신도기연, 위더스제약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기업은 단 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초가를 계속 유지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기준 29개 기업의 시초 대비 현주가 상승률 평균은 -6.8%로 부진했다. 29개

기업 중 20곳이 현 주가가 시초가를 밑돌았다. 박종선 연구원은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데다 시초가 형성 이후 유통물량의 수익 실현 등에 따른 수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공모주 열풍에 탑승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기 공모주에 대한 추격매수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권한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모주는 상장 이후 10일 이내에 파는 것을 추천한다. 거래량이 늘었을 때가 매도 적기"라며 "공모주를 받지 못한 투자자가 상장 이후 추격매수 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 객원연구위원은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돼 있지만 모든 공모주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IPO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파상'의 경험을 목격하면 공모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넷마블, IPO 흥행에 싱글벙글... 지분가치 1조

빅히트 2대 주주, 주식 25.1% 보유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도 4.4%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흥행 성공에 넷마블이 미소짓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두 회사에 투자해오던 넷마블은 이번 IPO 흥행 성공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넷마블은 빅히트 주식의 25.1% (713만4112주)를 보유하고 있다. 방시혁 빅히트 대표(45.1%)에 이어 2대 주주다. 이번 빅히트의 공모가 13만5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보유 주식 가치는 9631억원에 달한다.

넷마블은 지난 2018년 4월 빅히트에 2014억원을 투자했다. 이 당시 주목받은 것은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방시혁 빅히트 대표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로 당시 빅히트의 기업가치가 1조원으로 평가받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거액의 투자금이었기 때문이다.

상장 후 빅히트의 주가 흐름에 따라 넷마블이 보유한 주식 가치 또한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빅히트가 상장 후 파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최고 주가는 35만1000원을 기록한다. 이 경우 넷마블의 보유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 2조 504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초기 투자금에 비해 12배가 넘는 수익을 얻는 셈이다.

넷마블은 공모 자금 및 게임 사업에서의 안정된 현금 흐름 창출을 기반으로 빅히트 외에도 다양한 투자 자산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넷마블은 카카오킴즈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카카오킴즈 주식의 4.4% (321만83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넷마블은 지난 2016년 3월 카카오킴즈에 4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카카오킴즈는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IPO 추진을 결의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킴즈의 상장으로 넷마블이 다시금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넷마블의 IPO 흥행 기업 투자 성공 소식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라고 경고한다. 넷마블의 주가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아산 용화남산지구 '포레시티 줌파크' 내달 분양

대창기업, 미니 신도시급 조성
전용 75~84㎡, 763가구 규모

충남 아산 용화남산지구에서 첫 분양이 시작된다.

대창기업은 오는 11월 충남 아산시 용화남산2지구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산 용화남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산시 용화동 일원 21만 2845㎡(1지구 16만3330㎡, 2지구 4만 9015㎡) 부지에 2600여 가구를 수용하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주거 및 교통, 녹지, 공원시설 등이 계획돼 있으며 아산시 중심생활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개발된다.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는 아산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

시 용화동 480-3 일대에 들어선다. 75~84㎡, 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5㎡ 384가구 ▲79㎡ 69가구 ▲84㎡ 310가구다.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는 민간 임대아파트인 만큼 입주민들의 장기적인 주거여건이 보장된다. 이사 걱정 없이

8년간 장기 거주 가능하며, 임대 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다. 또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없어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까지 있다.

대창기업은 단지를 '자연친화' 컨셉트에 맞춰 '포레시티' (forest+city)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산2지구 내에 주거 단지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인접한 남산과 연계한 산책로 및 다양한 조경 공간 등을 배치한다. 여기에 단지는 신정호 관광단지도 인접해 있다.

인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2캠퍼스와 코닝정밀소재, 프렉스에어코리아 등이 입주해 있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가 차량 20분대 거리로 출퇴근이 쉽다.

/이규성 기자 peace@



캐슬 듀플렉스 가든하우스 개념도.



/롯데건설

롯데건설, 특화설계 복층형 구조 선보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에 도입
지하1층 별도 주차장 세대진입 가능

롯데건설이 최근 분양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에 '캐슬 듀플렉스 가든하우스' 특화설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도입한 '캐슬 듀플렉스 가든하우스'는 지상 1층 공간과 지하 1

층 공간을 연계한 복층형 구조의 특화 설계다. 지하 1층에 있는 별도의 현관을 통해 지하주차장에서 세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복층형 특화세대와의 차별화된 점이다. 또한, 바비큐, 휴가드닝 등이 가능한 쉼공간을 마련하여 지하 공간에 채광과 통풍을 유도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정연우 기자 ywj964@

KB증권 카뱅으로 계좌개설시 축하금 등 혜택

KB증권은 10월 말까지 '카카오뱅크'에서 KB증권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최초 신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개설 트리플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벤트 혜택은 카카오뱅크 어플 내 제휴서비스에서 '증권사 주식계좌' 메뉴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 카카오뱅크 입출금 연결계좌 선택, 비밀번호 설정, 신분증 촬영 절차 후 KB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누릴 수 있다.

제공되는 혜택 첫번째는 '5000원의 계좌개설 축하금'으로 계좌개설 즉시 신규 개설된 위탁계좌로 지급된다.

두번째는 '프라임 클럽(Prime Club) 서비스 5개월 무료 구독 혜택'이다. KB증권의 Prime Club 서비스 최초 신청 고객이 대상이다.

세번째는 '국내 온라인 주식 위탁수수료 혜택'이다. MTS '마블(M-able)',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하블(H-able)', 홈페이지를 통한 국내 주식 주문 시 올해 연말까지는 위탁수수료 0원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계좌개설일 기준 5년까지는 수수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관기관제비용만 부과)

/손범지 기자 sonumji301@